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 '속도'

전남도, 설계용역보고회 개최 건축 설계·조경 등 세부 논의 올 하반기 착공...2025년 개관

임진왜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우리나라를 지켜냈던 남도 의병의 역사를 담은 박물관을 짓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남도 의병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담아내면서 중장년부터 MZ세대를 물론 유아·어린이까지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만들겠다는 것이 전남도의 복안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도 전남의 랜드마크가 될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설계와 조경까지 직접 챙기며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17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의병의 구국 충혼을 기리고 정신 계승을 위해 추진 중인 '남도의병역사박물관' 설계용역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관련 실국장, 자문위원과 설계용역사인 건축학동건축사사무소 등 관계자가 참석해 건축 설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그동안 추진경과, 건축 설계안 보고, 공사 일정 등 향후 추진계획, 토의 및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된 보고회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남도의병의 특성을 살리는 차별화된 건축 설계와 조경, 관람객 동선을 고려한 공간 구성 등 세부 내용에 대해 심도있는 토의로 진행됐다. 김영록 지사는 "남도의병 정신은 다양한 연줄 및 전시관의 유물전시로 보여주기도 하지만 건축물이 방문객과의 첫 대면인 만큼 건물과 주변 환경

부터 '의병'의 큰 뜻을 전달하고, 감동을 주는 박물관으로 꾸며야 한다"며 "박물관 도로 접근성을 확대하고, 주변 숲, 산책길과 영산강변 휴식공간 조성도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관련부서와 지자체가 협력해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사업은 200만 도민의 염원을 담아 의병의 구국 충혼을 기리고 의병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추진된다. 영산강이 인접한 나주 공산면 신곡리 일원에 사업비 440억원을 들여 연면적 6884㎡ 규모로 전시 및 교육 공간으로 조성된다. 사계절 내내 온 가족이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은 올해 상반기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착공, 2025년 말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영록 지사, 순천 산불 현장 방문
김영록 전남지사가 19일 순천시 별량면 금치리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을 찾아 노관규 순천시장에게 산불 진화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전남도는 이날 진화헬기 16대, 진화차 7대, 소방차 13대, 진화장비 500점, 진화인력 758명 등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조기 진화에 나섰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 동남아 新 판로 개척

싱가포르·말레이시아서 수출상담회·농수산물 수출 협약 등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20일부터 6일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 수출 상담회, 농수산물 수출 업무협약, 수출기업과 간담회 개최 등 세계로 뚫어주는 전남 대외 실행을 위한 글로벌 도정 행보에 나선다. 문 부지사는 21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시장 개척 수출 상담회에 참석해 참가 기업을 격려했다. 수출 상담회에는 ㈜디엠티, 보향다원, 완도담 등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 15개사가 참여한다. 이어 한국식품 유통 전문기업으로 싱가포르에 공급제인을 확보한 LNC사와 농수산물 수출협약을 한다. 전남도는 향후 상설판매장 개설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22일에는 케이(K)-스타트업센터 싱가포르를 방문해 전남 기업이 해외 진출 시 케이(K)-스타

트업 지원사업 및 해외 진출 전략 방안을 청취할 예정이다. 영암에 본사를 둔 빈센 업체를 포함해 총 12개 기업이 센터에 입주해 있다. 그밖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한인회 간담회에 참석해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수산물 수출과 무역, 현지 시장 개척을 위해 도움을 준 동포를 격려하고 25일 귀국한다. 문 부지사는 "최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복합위기로 기업 활동이 많이 위축됐다"며 "새로운 해외 판로를 개척해 이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안정적인 판매처를 구축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132억 투입 26개 사업 추진

광주시는 올해 132억원을 투입해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 등을 통한 지속적인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광주시는 민관 협치를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지원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지원 계획에 따르면 광주시는 올해 총 사업비 132억원(국비 83억원, 시비 49억원)을 투입해 6대 전략, 26개 사업을 추진한다. 6대 전략 사업은 ▲협치와 연대경제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과 지원발굴 ▲판로 확대와 사회적 소비 활성화 ▲전략분야 강화 선도사업 발굴·육성 ▲홍보 및 국내외 네트워킹 강화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등이다. 핵심 전략은 협치와 연대경제 인프라 구축, 인재 육성과 지원 발굴, 판로 확대와 사회적 소비 활성화, 전략 분야 강화 선도사업 발굴·육성, 홍보·네트워킹 강화, 지속가

능한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이다. 광주시는 창업 초기 교육·컨설팅부터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특허출원 등으로 사업화를 돕고 근로자 인건비, 사회보험료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판로 개척과 인지도 확산을 위해 공공 구매공시제를 시행하고 판로 지원단, 온오프라인 매장도 운영한다. 특히 신규로 사회적 경제 기업에 정책자금, 대학원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친환경 포장재 개선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를 통해 조성하는 280억원 규모의 광주역 창업 벨트 조성 사업과 연계해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도 마련한다. 광주시는 다음 달 부지 매입을 마치고, 기본·실시 설계를 거쳐 2025년 말 타운을 완공할 방침이다. 최대면 광주시 일자리정책과장은 "다양한 지원 모델을 발굴해 사회적 경제 창업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기후위기 대응위' 공식 출범

탄소중립 정책 컨트롤타워

광주시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광주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위원회는 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탄소중립 비전 및 감축목표 설정, 탄소중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등에 대한 심의·의결을 맡는다. 광주시는 자원순환·저탄소 녹색성장·도시재생·기후위기적응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41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총 5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공동위원장에는 당면적인 강기정 광주시장과 함께 최도성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이 맡는다. 부위원장에는 황태연 조선대학교 교수가 선출됐다. 위원들은 ▲환경순환분과 ▲흡수원분과 ▲도시건축분과 ▲녹색교통분과 ▲에너지·산업분과 ▲기후적응분과 ▲실천분과 등 7개 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 지역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와 기아(주), 광주은행과 '광주 204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삼성전자는 ▲RE100 이행 ▲탄소포집기술 적용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을, 기아(주)는 ▲기후변화대응 신기술 개발 ▲친환경차 전환 ▲협력업체 온실가스 감축 지원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등에 나선다. 광주은행은 온실가스 감축 시민실천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삼성전자와 기아(주)는 기후변화 취약계층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인덕선과 생수, 인덕선용 조리용품을 지원키로 했다. 광주은행은 광주시가 추진 중인 '광주 온도낮추기 우수 아파트 조성사업'에 대한 홍보와 선정아파트에 우대금리 0.3%를 지원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일인 만큼 위원회와 함께 시민·행정·기업 각계가 값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 확대

자녀 수 따라 차등...최대 8년 지원

광주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거비 마련 부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따뜻한 광주' 결혼장려 지원 정책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신혼부부 총 468명에게 약 1억 680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지난 2021년 1월1일 이후 '주택도

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신규 대출 또는 연장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신청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은 광주에 소재해야 한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대출금액의 월별 은행에 납입한 총 이자액 범위 내에서 자녀수에 따라 무자녀 0.5%, 1자녀 0.7%, 2자녀 이상의 경우 1.0%로 차등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6년까지이지만, 2자녀 이상일 경우 8년까지 지원한다. 광주시는 오는 4월30일까지 광주아이금융 홈페이지를 통해 상반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신청을 받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봄에 떠나는 그리는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도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도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062-385-0515 | 투어나우: 062-575-8019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개원 20주년!!

2023년 계묘년 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